



**현대모비스, 전장부품 미래 먹거리 발굴**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핵심 경쟁력인 전장부품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제로 전환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수시로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해 능동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 전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량음향 기술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노사, 흑서기 운영질환 예방 협약**

현대제철은 노조와 흑서기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공장과 경북 포항공장, 전남 순천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도 순차적으로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에는 ▲휴게시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냉방시설 및 냉방용품 지원 ▲고열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현대제철



**신한은행, 서울여자간호대와 금융편의 제공**

신한은행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와 대학 운영지원 및 구성원 금융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크카드 기능을 탑재한 학생증 발급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현대차그룹**

**베네수엘라 복구 성금 전달**

현대차그룹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 총 100만 달러(15억5000만원) 규모의 구호성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지원하기로 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돼 현지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발, 2023년 모로코 지진 및 리비아 홍수, 튀르키예 지진, 2022년 미국 허리케인 이인 등 해외 대규모 재해에 성금 및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동현 △충북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정성우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최만석

**부음** ◆박정훈(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씨 부친상 ▲박수광(전 충북 음성군수·향년 80세)씨 별세, 양극덕씨 남편상, 박정훈(서울 송파갑 국회의원)·박정민(전 EBS PD)·박정용(티원 대표이사)씨 부친상, 차나연·홍혜림씨 시부상 = 1일 0시1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음성 생귀추모공원. ☎ 02-3010-2000

# LG이노텍, '피지컬 AI'로 미래 인재와 점점 넓힌다

대학생 공모 43작품 접수  
임직원 투표로 6편 선정  
시네마스코프 대상 수상

LG이노텍이 '피지컬 AI'를 앞세워 미래 인재와의 접점을 넓힌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브랜드 소통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이노텍은 '2026 대학생 유튜브 숏폼 광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미래 인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대학생 대상 광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LG이노텍의 미래 육성 사업 분야인 피지컬 AI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LG이노텍의 핵심



서울 강서구 LG이노텍 마곡 본사에서 열린 '2026 대학생 유튜브 숏폼 광고 공모전' 시상식에 참가한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LG이노텍

기술이 적용된 미래 모습을 숏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3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LG이노텍 임직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를 반영해 최종 수상작 6편이 결정됐다. 득표 순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팀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시네마스코프(박성현)팀'의 'LG Innotek Physical AI Lab'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피지컬 AI 실현실'을 배경으로, 로봇이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한편의 짧은 실험 기록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수상작들은 주제 적합성,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인 연출 방식, MZ세대 선호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짧은 영상 안에 미래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LG이노텍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수상팀에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과 참가자 인터뷰 영상은 추후 LG이노텍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여성·1인 소상공인 위한 스마트 안전망

소진공, 대전경찰청과 범죄예방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경찰청과 손잡고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을 지킨다.

소진공은 1일 대전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과 여성 및 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전담할 수 있는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과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골목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소진공은 대전경찰청과 협업으로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과 안심 상권 브랜드 구축을 통해 안심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심 태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7월 한달 간 대전지역 골목형상점가 2곳을 대상으로 여성·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심 태그 스티커를 보급하고 상점가 진입로에 현수막 게시와 SNS 홍보 등을 통한 시범운영 후 시스템 오류와 요구사항을 보완 하여 8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골목상권 내 여성·1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황 제공 등 협업체계 구축 ▲NFC 스마트 안심 태그 사업의 공동 추진 및 홍보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여성·1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여성·1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HD현대1%나눔재단, 생물표본 전시

중증장애인 제작사 양성 성과 소개 국립공원공단과 3년간 사업 추진 곤충·식물·압화 표본 국회 공개

HD현대1%나눔재단은 오는 2일까지 서울 국회의사관 제2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HD현대1%나눔재단과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사 양성·운영'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곤충표본, 식물표본, 아크릴 압화 식물표본 등이 공개된다. 전시물은 ▲꿈 ▲공생 ▲나눔 ▲도약의 씨앗 등 4개 테마로 구성됐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생물 시

료 선별과 표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와 기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후원했다. 이를 통해 훈련장애인 20명과 근로장애인 24명이 생물표본 제작사 양성 과정과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생물표본은 생태계 변화 관찰과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다.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사들은 주당 1만 마리 이상의 곤충을 분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지난 2020년에는 미기록종인 '청동방아벌레'를 발견하는 성과도 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오비맥주, 폭염 대비 OB워터 나눔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 지원 대구 장애인·전국 노숙인시설 전달

오비맥주는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재해구호용 생수 'OB워터' 3만 1,000여 병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생수는 오비맥주가 지난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재해구호용 물량의 일부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수분 보충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달 11일에는 한국적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8600병이 전달됐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2만 3000여병이 전달됐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전달된 생수는 인천 거점소를 통해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지역 노숙인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OB워터는 오비맥주가 산수음료와



오비맥주가 폭염 취약계층 위해 'OB워터' 3만 1,000여 병을 지원한다. /오비맥주

협업해 제작한 500ml 재해구호용 생수로, 사탕수수 유래 소재를 적용한 용기와 라벨, 뚜껑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재난 발생 시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약 88만 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화학, 청년 실무형 인재양성 박차

'Let's Grow'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AI·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 강화

LG화학이 미취업 청년들의 실무 경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LG화학은 'Let's Grow with LG화학'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Let's Grow with LG화학'은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LG화학의 밸류체인 기반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I) 기술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익히며, 여수 국가산업단지 기반 현장 교육과 직무 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코칭 인증공인교육 수료증과 AX 전문가 Level 1 등 자격 취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수료생 전원에게 'LG 스탠바이미'가 지급된다.

교육 기간에는 오산 월 최대 30만원, 여수 월 최대 50만원의 훈련 수당이 지원되고, 숙박 또는 통근버스 등 교육 편의도 제공된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 내일채움 가입자

### 역량강화 교육 시작

중진공, 배움채움 1000명 선착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과보상 공제 가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통합 교육과정인 '2026년 내일채움 배움채움'의 신청접수를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일채움공제와 중

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교육은 중소기업 현장의 가장 화두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 실습 집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신규 과정으로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